

2010년 6월 25일 금요일 새벽말씀

이때는 마침 주님의 재림 때입니다. 사람들이 행한 대로 갈수록 점점 더 심해져 민족이 소란하게 될 것입니다. 바람 소리와 파도 소리가 극렬할 것입니다. 모두 두려워할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환난이 시작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절의 때가 되면 으레 한파가 밀려오고 비가 쏟아진다는 것은 예상하는 것이지만, 앞으로 쏟아질 것은 해마다 오는 장맛비도 아니고 눈보라도 아닙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쏟아질 것입니다.

추위에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때 성령의 은혜를 받고 바빠 준비해야 됩니다. 그것이 피하는 일입니다. 온 세상은 평화가 철새처럼 날아가 버리고 까마귀들만 떼를 지어 지저귀는 것입니다.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눈보라가 치지 않고 계속 봄날이 오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계절이 오면 그 계절에 해당되는 눈과 비가 쏟아집니다. 그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라. 지금같이 기도가 필요한 때가 없었다. 성령을 받아라.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를 위해 순간 왔으니 마지막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지금은 소돔 땅에 살던 롯이 천사를 만난 날 밤과 같은 때다. 천사의 말을 듣고도 피하지 않은 자들은 다 멸함을 받았다. 이 시대에 내가 하는 말을 말씀으로 외치는 자를 통해 전하는 말을 듣고도 안 지키면 육과 영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앞으로 환난의 눈보라가 칠 것이며 비바람이 점점 세계 몰아칠 것입니다.

주님은 “그날은 이미 피할 수가 없게 되었다. 너희의 삶은 그같이 정한 바 되었다. 세상이 하늘을 그같이 대하였구나. 평

화의 꿈을 이루겠다고 북쪽에서 자진해서 행하던 일들인데, 왜 북쪽은 자신들이 그 평화를 포기하고 순간 냉랭하게 변해 버려 얼음장이 되었을까? 자신들도 모를 것이다.”

이 말씀대로 그들은 싫어하면서도 해야 될 운명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 하였건만 너희는 내가 보낸 사역자들의 품으로는 오기 싫어하였도다. 이제는 너희가 황폐하게 되리라. 이 시대도 그러하노니, 기도하면 다만 그날을 감하시리로다. 너희가 기도하여 하나님이 감하지 않으신다면 남는 것이 없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시대가 책임을 다하였으면 남북이 막히지 않고 서서히 한 몸이 되도록 주님은 역사하셨을 것입니다. 이제는 한 몸 중에 상체의 마음과 하체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대화하면 오해가 풀리고 같은 마음이 됩니다. 앞날의 날씨를 보니, 민족에 비바람과 눈보라가 많이 칠 것입니다. 모두 자기 삶을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자를 냉랭하게 대하면 어느 시대든지 다 동일합니다. 세상의 어떤 일들은 앞날에 그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미리 보여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후에 그대로 그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또 하나는 시대나 민족이 책임을 못 했을 때 일어날 환난이었지만 의인의 기도로 운명이 좌우되기도 합니다.

어느 시대든지 기다리던 자들이 하나님이 보낸 사명자를 무지로 대하여 그가 사명을 못 하면 사명자는 고통의 십자가 길을 가게 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책임을 하지 못한 개인이나 민족은 더욱 대가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롯 유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가 책임을 다

하지 못하여 기록된 대로 고난의 길을 가지만, 너는 인자를 그같이 대하였으니 화가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시대도 가룟 유다같이 되어 버렸습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환난 전에 성령의 인 치심을 받아라. 이제 어서 내가 가르쳐 준 대로 하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잠을 안 깨우셔도 본인들이 알아서 일찍 일어나 기도하고, 생활 가운데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말고, 성령의 불이 꺼진 자는 형제들과 같이 기도하여 또 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 묻기를 “앞날에 이같이 환난이 올 것인데 건물도 짓고 전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했습니다. 이에 주님은 “공적을 많이 쌓으면 하늘나라에 가고 가니, 죽는 그날이 내일이 되더라도 자기 할 일은 꼭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모두 앞에서 말한 찬바람, 비바람, 태풍의 비유를 깨닫기 바랍니다.

주님은 “모두 형제들과 싸움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갈 때 기도하고 은혜를 받아라. 지금은 섭리사에 은혜를 주는 때며, 너희들의 회개를 받아 주는 클라이맥스의 때다. 이때가 지나면 비바람이 더 쏟아진다. 어찌하여 이렇게도 민족이 소란하게 되겠느냐. 그때가 되면 모두 말들을 하게 되고 여러 소문을 듣게 된다.”고 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애굽에 판 후에 어려운 일이 닥치고 모진 고통이 오니, 자신들이 행한 일로 인하여 받는 고통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시대도, 민족도 그러할 것입니다.

아직도 형제들과 싸움하고 말다툼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화평치 못한 가정이 있습니다. 이때 구원열차를 못 타

면 안 됩니다. 타고 가면서 말다툼을 할지라도 반드시 구원열차를 타야 됩니다. 타는 것을 먼저 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흠 없이 해야 됩니다.

평소에 열심히 하던 자들인데 성령집회 때 은혜를 못 받는 자들이 있어 울상들을 한다고 주님께 간구하니, 주님은 “걱정 말고 쫓아가 은혜 가운데 뭉쳐라.” 하셨습니다.

한번은 누가 조은이 강사에게 “성령집회에 참석했는데 은혜도 못 받고, 성령의 체험도 못 하고, 성령을 못 받았다.”고 하며 얼굴이 사색이 되어 울상을 하고 찾아 왔기에 다음 집회 때 오라고 하며 기도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집회에 와서는 성령의 뜨거운 불을 받고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쫓아가서 기도받고 성령을 받는 데 힘써야 됩니다. 선생을 대신하여 집회하고 있으니, 말로만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하기 바랍니다.

나도 예전에 성령의 은혜 받았다고 하지 말고, 지금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뜨거운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게끔 단장하고 주님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맞으러 하루가 급하게 전진하고 있는데, 저 건너 큰 마을 사람들은 아직도 잠만 자고 있습니다. 피곤할 것입니다. 세상을 가까이하고 하나님께서 보낸 자를 미워하는 것도 머리가 피곤한 일입니다.

사랑하면 피곤치 않을 것입니다. 미움을 받은 자는 다리를 뻗고 단잠을 자며 ‘나는 주님을 모시고 사니 행복한 사람’이라고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미움을 받아도 따르는 자들이 너무도 잘해 주니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고 주님이 그렇게도 말씀하셨는데, 성경

말씀을 안 지키면서 사는 큰 마을 사람들은 정말로 큰 환난이 닥쳐 올 것도 모르고, 주님이 앞에 곧 오시는지도 제대로 모릅니다.

미워하고, 혈기를 내고, 막말을 할 때는 속이 시원하지요. 스트레스가 풀릴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기쁘지 않은 것을 모두 경험해 보았지요? 강 건너 큰 마을 늙은 사람들의 마음도 그러합니다. 냉랭하게 대하였으니, 그 행위대로 냉랭하게 대한 자들에게는 여름철에 더욱 찬바람이 극심하게 불어 닥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뜨거운 불로 인하여 춥지 않지요.

숨긴 환난은 환난 전날까지도 모릅니다. 환난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니 다만 사전에 기도해야 됩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 큰 소나무들이 흔들리고, 눈보라가 치면 솔잎이 갈잎으로 변하지는 않지만 추워서 달달 떨어 것입니다. 산불이 나면 큰 나무라도 타고 맙니다. 흑송도 청송도 모두 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가혹하게 대하면 절대 안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냉랭하고 가혹하게 대하면 안 됩니다. 천국에 가서 보면, 주님을 믿는 자들이 주님께 욕을 한 것도 많 습니다. 이는 주님이 보낸 자를 욕하고 가혹하게 대한 행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혹하게 대하면 그 행위대로 갚아 주십니다. 그러면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보낸 자를 냉혹하게 대하고, 욕하고, 거슬리게 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나는 그런 자들을 외면하고, 그런 자에게는 뜻이 없으니 그냥 떠난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사역자를 쓰고 같이 다니십니다.

같이 섭리를 뛰어오다가 서로 선생을 위한다고 하다가 몰라

서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일어나게 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 전 것을 들춰내어 서로 심정 싸움하면 뭐 합니까? 선생이 원하는 것은 서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서로 심정 몰라서 그같이 했으니 다 꿈이라 생각하고 깨 버리고 하나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천적은 사탄 마귀입니다. 모두 하나 되어 사탄을 공격하고 기도하여 없애야 됩니다.

선생이 십자가를 지고 갈 테니 밖으로 나간 자와도, 안에 있는 자와도 싸움하지 말아요. 형제를 나쁘게 말하지 말고 선평하면서 전체가 변화하여 은혜로 방향을 바꾸기 바랍니다.

사람은 대화하여 서로 자기의 심정을 말해야 압니다. 대화하면 한 마음이 됩니다. 상대의 마음을 속상하게 한 자는 잘못된 것입니다. 형제들과 풀었는데도 안 풀리면 내게 풀기 바랍니다. 내게 못 풀면 주님께 풀면 됩니다.

아무리 잘못된 것도 그까짓 것 용서하려 마음먹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해 봐야 선생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 앞에 사망길과 생명길을 두고 그까짓 것 용서하지 못합니까? 우리는 오직 사탄과 싸워야 됩니다. 형제들과 싸우지 말고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됩니다.

이제부터 형제들을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지 말고 서로 주님을 대하듯 바뀌어야 됩니다. 함정에 빠진 자와 낙심한 자들의 편지를 받고 선생이 구하러 다니고 있으니, 여러분 마음대로 그 사람에게 돌을 던지면 결국 내가 맞게 됩니다. 그러니 형제들에게 돌질하지 말고 눈총 돌리지 말기 바랍니다.

함정에 빠진 자들을 건지려 선생이 그 함정에 들어갔으니, 돌을 던지면 선생의 머리에 맞고 얼굴에 맞습니다. 돌 던진 자는 누가 되었든지 후에 광고할 것입니다. 미리 예고하고, 경고하고, 선생님이 행하니 일제히 내게 맡기고 하기를 바랍니다.

다.

모두 마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님의
뜨거운 역사와 감동 감화하심이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